인문연구 제91호
Journal of the Humanities
2020. Vol. 91, No. 8, pp.223~260
http://dx.doi.org/10.21211/JHUM.91.8

1930년 전후 불경기와 경제·노동 관련 어휘*

- 조선인 발행 잡지의 어휘 소개란을 중심으로 -

김윤희**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경제·노동 관련 어휘 현황
3. 어휘의 시기별 특징
4. 중복 소개된 어휘와 그 의미 차이
5. 나가는 말

【국문초록】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조선 경제는 불경기에 빠졌고, 조선인들의 경제생활은 더욱 피폐해졌다. 한국인이 발행한 언론들이 불황을 한국 경제의 파산과 연결시켰다. 경제위기와 계급의 각성을 촉구하는 담론의 제작과 배포가 경제·노동 관련 어휘 확산의 배경이

* 이 연구는 2018학년도 전주대학교 정착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Jeonju University in 2018).

**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교수

되었다. 자본주의 경제 위기를 처음 경험한 한국인은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고, 조선 지식인들은 이에 부응하여 경제 담론을 생산했다.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와 계급운동의 실천적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경제 담론이 조선인 사회에 확산해 갔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지식인의 경제사상에 초점을 맞추었고, 경제 담론의 자장과 그 효과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제 담론과 경제 질서 관념을 연구하는 기초 연구로서 경제 및 노동 관련 어휘를 탐구했다. 이글은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경제 및 노동 관련 어휘의 현황 등을 검토하고 잡지 발행 주체별, 시기별 어휘 소개의 차이 그리고 어휘의 의미차이를 탐색했다.

주제어 : 경제, 신어, 시장, 공황, 파산, 민족

1. 들어가는 말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이후 일본과 조선에서는 불경기가 시작되었다. 1920년 창간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남대문 상점의 파산과 실업 증가 현상을 보도하면서 조선인의 경제적 파산 현상을 보도했다. 전쟁 기간 곡물과 생사 등의 일본 수출로 대일무역 수지 적자 폭이 크게 줄어들어 수지 균형이 진행되고, 일본의 통화팽창으로 비교적 호경기를 경험했던 조선인은 전쟁 종결 이후 찾아온 불경기와 생활 위기를 충격으로 받아들였다. 민족주의 정치세력은 총독부의 경제조사 통계를 근거로 하여 재조일본인과 조선인의 경제 상태를 비교하고, 조선경제가 발전할 때 조선인 경제는 발전하지 못했다는 담론을 생산하고 매체를 통해 유통했다. 사회주의 정치세력 역시 파산한 조선인 경제담론을 공유하면서 농촌

의 피폐화, 무산자의 생활 위기에 주목했고, 무산계급의 대표자로서 '노동자'의 계급적 자각을 추동하고자 했다. 경제 위기와 계급의 각성을 요청하는 담론의 생산과 유통은 경제・노동 관련 어휘 확산의 배경이 되었다.

1920년~1936년 경제・노동 관련 어휘 연구는 최근에서야 주목받기 시작했다. 일상 문화와 관련된 유행어를 분석했던 연구에서 일부 경제 관련 유행어를 소개하여 불경기와 경제관련 어휘의 관계를 탐색했다.[1] 근대 상식의 형성과 분화란 관점에서 경제지식의 확산을 고찰한 연구는 1920년대 후반 경제학 학문체계의 도입, 경제서의 보급, 경제학 연구의 활성화, 경제 평론가의 등장 과정을 통해 경제 지식이 상식의 차원에서 이해되고 있었음을 고찰했다. 그리고 1930년대 일본의 금본위제 복귀와 탈퇴 과정에서 파생된 경제 환경의 변화를 배경으로 배금풍조에 부응하는 취인소 관련 용어가 확산하면서 경제 지식의 층위가 다양해지고 경제개념도 하나로 모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2] 또한, 1930년대 전후 매체에서 드러난 시장 관념을 고찰한 연구에서는 이러한 용어의 유통으로 '모호한 그러나 예측되어야 하는 시장'이란 관념이 확산하였음을 지적했다.[3] 그러나 이 연구는 경제・노동 관련 어휘를 본격적으로 탐색한 것은 아니었다.

한편, 근대 신어 연구는 신어사전, 외래어 사전, 이중어 사전 등의 의미와 어휘 현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4] 본 연구가 대

---

1) 김윤희, 「근대 신어의 형성, 일상문화 어휘를 중심으로」, 국어사학회, 『국어사연구』 제11호, 2010, pp. 37-67.

2) 이행선, 「식민지 조선의 경제공황과 경제상식」,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한국민족문화』 제54호, 2015, pp. 235-270.

3) 김윤희, 『조선인 경제의 탄생과 시장의 발견』, 도서출판 선인, 2018, pp. 234-238.

4) 송철의 외, 『일제 식민시기 어휘 : 어휘를 통해본 문물의 수용 양상』,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황호덕, 「근대 한어와 모던 신어, 개념으로 본 한

상으로 하는 조선인 발행 잡지의 어휘 소개란 연구는 대중잡지 25종을 대상으로 어휘 소개의 현황을 고찰하고, 어휘 소개란의 명칭을 신어, 술어, 유행어, 모던어, 외래어, 신문어 등으로 나누어 고찰했다. 그리고 외래어 소개에 좀 더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했다.[5] 매체에 소개된 신어 정보를 정리한 기초자료 토대 연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의 신어에 대한 해제 집을 발간했다.[6] 그중 경제 분야는 개항 이후 1945년 이전 시기 신문, 잡지에 소개된 신어를 노동·경제 분야로 구분하고, 그 하위분류를 산업(금융포함), 소비, 직업, 노동문제, 경제 현상 등으로 나누어서 해당 분야 어휘의 유형별 특성을 개괄적으로 고찰했다.

이에 이글은 위의 신어에 대한 토대연구 성과에 기초하여 경제·노동 관련 어휘의 현황을 고찰하고, 어휘의 주체별, 시기별 차이와 그 의미 차이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조선인 공론장에서 유통된 경제담론과 조선인의 경제관념을 탐색하기 위한 기초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중일 근대어의 재편-『모던조선외래어사전』, 공유의 임계 혹은 시작」, 상허학회, 『상허학보』 제30호, 2010, pp. 263-305; 김한샘, 「『신어사전』(1934)의 구조와 근대 신어의 정착 양상」, 한글학회, 『한글』 제304호, 2014, pp. 117-139.

5) 박상진, 「19201930년대 대중잡지의 어휘소개에 대하여-현황과 명칭의 검토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국학연구』 제38호, 2011, pp. 129-173.

6) 이 연구는 2014년~2016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기초자료 토대연구지원을 받아 진행되었고, 그 결과물의 하나로 『한국 근대 신어의 유형과 특성』(송찬섭 외, 역락, 2016)을 발간했다.

2. 경제·노동 관련 어휘 현황

3·1운동 이후 제한적이나마 언론출판의 자유가 승인되면서 조선인 발행 잡지가 발간되었고, 이들 지면을 통해 새로운 어휘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1920년에 창간한 잡지 『공제』는 '통속유행어'란 제목으로 시사어휘를 소개했다.[7] 이후 『개벽』, 『별곤건』, 『신동아』 등의 잡지에 어휘 소개란이 구성되고 어휘의 의미를 설명했다. 1920년~1936년 사이에 발행된 잡지 29종에 실린 어휘 소개란에서 중 경제·노동 관련 어휘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지 않았다.

〈표 1〉 29종 잡지의 어휘 소개 현황

	잡지(발간 연도, 통권)	소개란 제목	어휘 총수	경제 어휘	소개연도
1	가톨릭청년 (1933~36, 통권43호)	新語放送局	19개	5개	1933
2	개벽 (1920~26, 통권72호)	重要術語辭典(朴英熙)/最近朝鮮에 流行하는 新術語	656개	8개	1924~1925
3	계우(桂友) (1927~36, 통권16호 확인)	現代語와 流行語 解說	103개	15개	1932
4	공제(1920~21, 통권8호)	通俗流行語(若水)	62개	5개	1920
5	농민(1930~33, 통권42호)	術語解說	77개	26개	1932~1933
6	당성(黨聲)(?~?)	社會常識術語	58개	4개	1932
7	대중공론(1930, 통권5호)	新術語辭典	44개	18개	1930
8	동방평론(1932, 통권3호)	社會科學用語問答	6개	1개	1932
9	모던조선 (1935~39, 통권55호)	모던語辭典	20개	2개	1936
10	별건곤 (1926~34, 통권74호)	*新語大辭典/新語辭典/**新語大辭典/新語大辭典	126개	13개	1930~31

7) 若水, 「通俗流行語」, 『공제』 제1호, 1920, p. 160.

11	비판(1931~40, 통권114호)	批判辭典	77개	11개	1932~1933
12	사상운동 (1924~25, 통권7호)	新術語解釋(海山)/*術語解釋(K)/**新術語解釋(李友狄)	14개	6개	1926
13	사해공론 (1935~39, 통권55호)	新語集	152개	8개	1935
14	신동아 (1931~36, 통권59호)	모던語	282개	27개	1931~1936
15	신만몽(1932~?, ?)	모던語辭典(4)	28개	2개	1932
16	신여성 (1923~26, 1931~34, 통권38호)	시시로 보면서 모를 말辭典/모던流行語辭典/여자에 대해서 쓰는 말	159개	5개	1925,1931
17	신인간(1926~45, 통권189호)	*常識外來語(蓮波,一記者)/常識辭典(도현, 石靜)/**新人間辭典(編者)	293개	44개	1927~1929
18	실생활(1931~1940, ?)	新術語略解	26개	4개	1932
19	아등(我等)(1931, 통권4호)	我等辭典	53개	17개	1931~1932
20	월간매신 (1934~?, 통권27호)	新聞語解義	13개	6개	1934
21	인도(人道)(?~?)	短語辭林(편집실)	8개	4개	1929~1930
22	전선(全鮮)(1933, 통권5호)	全線用語	99개	16개	1933
23	조선농민 (1925~1930, 통권 38호)	術語辭典(편집부)	44개	11개	1926
24	조선지광 (1922~30, 통권100호)	新語解釋/新語解釋/*無産者辭典	231개	75	1927~1932
25	천도교회월보 (1910~38,통권315호)	新聞語/外來語解釋(檀正)/*術語解說(檀正)	151개	16개	1928~1930
26	철필(1931, 통권4호)	新聞語辭典	24개	1개	1931
27	학등(學燈) (1933~36, 통권 23호)	新語辭典	163개	13개	1934~1935
28	학생(1923~30, 통권11호)	新語辭典	115개	4개	1929
29	한글(1927~28, 통권9호)	새말 고쳐쓰기	61개	1개	1927
	합계		3,164개	368개	

통권 100호를 넘게 발행한 것은 『비판』, 『신인간』, 『조선지광』, 『천도교회월보』로 4종에 불과했다. 통권 10호 이하로 발간된 잡지는 『공제』, 『대중공론』, 『동방평론』, 『사상운동』, 『아등』, 『전선』, 『철필』, 『한글』로 8종이나 되었다. 총독부의 언론통제와 출판 주체의 재정 문제 등으로 잡지 발간 환경은 매우 유동적이었다. 또한, 20년대 창간하여 30년대까지 지속해서 발간된 잡지는 『별곤건』, 『신인간』, 『천도교회월보』 정도였다.

잡지에서 어휘를 소개하기 위해 사용한 제목은 다양했다. 『공제』는 김약수의 '통속유행어', 『개벽』은 박영희의 '중요술어사전'과 '최근조선에 유행하는 신술어', 『신여성』은 '시시로 보면서 모를 말 사전', 『사상운동』은 해산과 K의 '신술어해석'과 '술어해석', 『조선농민』은 편집부 명의로 '술어사전', 『조선지광』은 '신어해석', 『신인간』은 '상식외래어'와 '신인간 사전', 『천도교회월보』는 '외래어해석'과 '술어해설', 『인도』는 '단어사림', 『학생』은 '신어사전', 『대중공론』은 '신술어사전', 『별건곤』은 '신어대사전'과 '신어사전' 등의 이름으로 어휘를 소개했다. 『신인간』과 『천도교회월보』는 외래어를, 『신인간』은 상식을 사용했지만, 대부분의 잡지는 신술어 또는 술어란 용어를 사용했다. 발간 호수가 많다고 해서 꾸준히 어휘를 소개한 것이 아니었다. 소개된 어휘의 수가 발행 호수의 수에 비례하는 것도 아니었다.

〈표 1〉에서 보면, 100개 이상의 신어를 소개한 잡지는 『신인간』, 『신동아』, 『조선지광』, 『학등』, 『신여성』, 『사해공론』, 『천도교회월보』, 『개벽』, 『별건곤』, 『학생』, 『계우』 순이었다. 천도교 신파세력의 잡지였던 『신인간』, 신문사가 발간한 대중종합잡지였던 『신동아』,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의 글이 자주 실렸던 『조선지광』 등이 200개가 넘는 신어를 소개했다. 『신인간』과 『신동아』가 소개한 어휘들은 주로 외래어에 대한 소개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1920년대 말에서 1930년대 초 외래어가 다량 유입되고 확산한 시기적 특성

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9종의 잡지를 발간 주체별로 보면, 천도교 계열 잡지가 10종으로 가장 많았다. 천도교 청년회가 주도한『개벽』, 여성계몽을 위해 발간했던『부인』의 후신인『신여성』, 천도교의 농민계몽잡지로 이돈화와 이성환이 발간했던『농민』, 천도교 신파계열이 발간을 주도했던『신인간』, 천도교회의 월간 기관지『천도교회월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학생』,『개벽』의 뒤를 이어 취미 잡지를 표방하며 발간된『별건곤』, 천도교 청년회에서 발간한『당성』, 천도교 이종린이 발간한『실생활』,『조선농민』은 모두 1,187개 어휘를 소개하였다. 29종의 잡지에 소개된 어휘가 총 3,164개인 점을 고려한다면 거의 40%에 육박하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사회주의 계열의 발간 잡지로는 일월회 기관지였던『사상운동』, 종합잡지를 표방했던『조선지광』, 대중잡지를 표방했던『비판』, 사회주의 평론지『전선』, 조선노동공제회의 기관지『공제』의 5종이었다. 이들 잡지는 483개의 어휘를 소개했다. 이들 잡지의 어휘 소개란 제목 역시 대부분 신어, 신술어란 어휘를 사용했지만, '비판사전', '전선용어', '무산자사전' 등이란 제목을 사용하여 사회주의의 이념적 특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1930년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문예를 아우른 대중 종합잡지를 표방한『동방평론』,『조선강단』의 후신으로 학구적인 성격을 줄이고 한층 더 대중화하기 위해서 발간한『대중공론』, 오락 취미 중심의 대중지『모던조선』, 동아일보에서 발행한 시사 종합지『신동아』, 월간 종합문예잡지『사해공론』5종은 특정 계열로 분류되지 않는 대중 종합잡지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잡지는 '신술어사전', '사회과학용어문답', '모던어사전', '신어집' 등의 제목으로 어휘 504개를 소개했고,『신동아』의 '모던어'는 282개의 외래어를 소개했다.

기타 잡지로는 천주교 서울교구에서 발간한 월간잡지『가톨릭청

년』, 중앙고등보통학교 교우지 『계우』, 학생들의 교양 함양을 위해 발간된 문예잡지 『학등』, 만주에 본사를 둔 신대륙사에서 만주와 몽고의 상황을 담아 발간한 『신만몽』이 있었다. 충청도 홍성에서 최명용이 창설한 유교부식회에서 발행한 『인도』, 조선어학회 기간 회원이었던 신명균이 발간한 『아등』, 조선어학회의 기관지 『한글』은 정치, 사회와 관련된 한자 어휘를 주로 소개했다.

29종의 잡지에서 소개된 어휘 3,164개에서 경제・노동 관련 어휘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은 368개였다. 이는 소개된 전체 어휘의 14%에 불과했다. 경제・노동 관련 어휘는 생산, 교환, 노동, 자본의 형태, 그와 관련한 실천행위 등을 지시하는 것으로 한정했다. 직업. 소비재, 소비문화 등과 관련된 어휘는 문화적 현상과 연결지어 설명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제외하였다.

이들 잡지의 경제・노동 관련 어휘의 수는 잡지별로 편차가 컸다. 『조선지광』은 1927년~1930년 사이 17호에 걸쳐 70개의 어휘를 소개했으며, 『신인간』은 1927년~1929년 사이 11호에 걸쳐 44개의 어휘를 소개하였다. 그 외 잡지들은 대략 20개를 넘지 못했다. 『개벽』, 『조선지광』, 『별건곤』을 제외하고 잡지의 발간 기간이 짧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1920년 『공제』는 1호와 2호에 통속유행어란 제목으로 62개의 어휘를 소개했는데, 그중 5개의 어휘가 경제・노동 관련 어휘였다. "사람을 대함에 친(親)과 애(愛)로써 강제로 이끌지 않고 자기에게 경복(敬腹)케 하는 주의"라는 설명 자체는 경제 영역과 관련이 없지만, "최근 노동문제 아래에 많이 쓰인다."는 설명을 덧붙인 것을 보면[8] 당시 온정주의는 노동자에 대한 자본가의 태도를 표현할 때 쓰였던 용어였다. 이 어휘는 이후 "노자협조라는 기치를 날리고 오는 사상의 내용은 다수가 이 온정주의에 입각

8) 『공제』 제1호, 1920, p. 161.

한 것이다."라는 표현에서 보듯 노사협조의 태도란 의미로 정착되었다.[9]

자유무역이란 의미로 해석된 해양의 자유[10], 손이 흰 노동자 즉 화이트칼라를 뜻하는 백수노동자(白手勞働者)[11]는 자유무역, 정신노동자 등의 어휘가 일반화되기 전에 사용된 것이었다.

경제·노동 정책과 관련된 어휘로 공설시장[12]과 공장법[13]이 소개되었다. 공설시장은 1920년 경성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염가 판매시장에 대한 설명이었으며, 공장법은 노동자의 기본권 보호법으로 소개되었다. 공장법은 이미 1908년『신편경제학』에서 소개되었던 것이었다.[14] 1920년 노동문제가 점차 사회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학문의 영역에서 사용되던 어휘가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924년~1925년『개벽』에 소개된 경제·노동 관련 어휘는 무산자, 잉여가치설,[15] 자본주의,[16] 생디칼리즘,[17] 임금철칙,[18] 노농운

---

9)『인도』제8호, 1930, pp. 78~84.

10) 세계적 대전란에 비추어 미국 윌슨이 주창한 설이라. 해양을 자유롭게 공개하여 전시 평시의 구별이 없이 각국 피차의 이익을 위하여 개방코자 함이니 곧 사유재산 포획 폐지, 전시금지제품 폐지, 전시에 임하여 통상상의 봉쇄 폐지의 의미(『공제』제1호, 1920, p. 162).

11) 노동자는 손이 검으나 실내의 문필노동자 즉 매문(賣文)노동자는 손이 희다는 의미(『공제』제2호, 1920, p. 109).

12) 정부에서 저렴한 생활 자료를 그 생산지로부터 직접 구입하여 인민에게 염가로 분배코자 하는 관설시장(『공제』제2호, 1920, p. 108).

13) 1802년에 제작된 법률이니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공장 내의 위생, 오락, 질서에 관한 설비를 개선하며 또한 상당한 임금을 지불하도록 정한 법률(『공제』제2호, 1920, p. 108).

14) 朴承熙, 朱定均,『最新經濟學』, 1908, p. 145.

15) 이것은 유물사관과 한 가지 마르크스주의의 2대 근본원리다. 그의 말을 보면 자본가가 고용시키는 노동자의 매일 파는 노동력은 하나의 상품이다. … 그렇지만 그들은 8시간이나 10시간 동안 어느 때는 그 이상의 시간을 노동한다. 그러함으로 그 시간 안에 그 자본가의 소유하는 것은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것이다. 이것이 자본가가 그 이윤을 얻는 방법이다

동, 민중, 계급투쟁이었는데 잉여가치설, 자본주의, 생디칼리즘, 임금철칙에 대한 설명은 매우 전문적 지식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노농운동[19], 민중[20], 계급투쟁[21] 어휘는 '최근 조선에 유행하는 신술어'라는 제목으로 매우 간결하게 소개했다. 1920년대 잡지에 소개된 어휘 대부분은 경제제도, 경제조직, 산업분야, 생산 그리고 노동과 관련하여 노동운동 형태, 조직, 노동자 보호 등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1930년대에는 외래어 어휘가 증가했다. 〈표 2〉에서 1930년 이후 발간된 18종의 잡지 대부분은 1920년대와 같이 신술어, 술어, 신어란 제목을 사용했지만, 『계우』는 '현대어와 유행어 해설', 『모던조선』은 '모던어사전', 『신동아』는 '모던어', 『신만몽』은 '모던어사전', 『신여성』은 '모던유행어 사전'이란 제목으로 외래어와 유행어를 소개했다. 또한 『월간매신』의 '신문어 이해', 『철필』의 '신문

((『개벽』 제50호, 1924, p. 68).

16) 오늘날의 법률이나 경제조직에서, 자본가가 대자본을 출자해서 기계의 설비를 하고 노동자와는 일정한 계약 아래에서 그들을 사역해서 비로소 거기서 생산되는 화물은 자기의 마음대로 판매해서 그 이익의 전부를 자본가가 소유하고 노동자에게는 그 계약한 데 쫓아서 일정한 임금을 지불하는 생산조직을 자본제도 생산 혹은 자본주의라고 한다(『개벽』 제51호, 1924, p. 28).

17) 사회조직에 대한 일종의 철학적 사상과 또한 실제 사회운동의 한 경향으로 … 생디칼리슴은 아직껏 발육 중으로 일정한 정의를 말하기는 곤란하나 대체로 말하면 노동자의 이익을 약탈하는 기초인 자본주의적 제도를 폐지하고 완전한 계급적 지배와 계급적 약탈에서 자유로 탈출해서 새로운 사회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그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서 조성한 노동조합주의의 일종이다(『개벽』 제51호, 1924, p. 31).

18) 임금철칙(賃銀鐵則)설은 독일의 사회주의자 라살레가 1863년에 노동조합에 준 공개서 중에 말한 것이다(『개벽』 제51호, 1924, p. 36).

19) 노동자와 농민을 주체로 한 운동(『개벽』 제57호, 1925, p. 69).

20) 절대 다수의 무산대중을 칭하는 말((『개벽』 제57호, 1925, p. 69).

21) 계급과 계급- 즉 지배계급 피지배계급 사이에서 사상 출돌 이해 상쟁으로 일어나는 계급전쟁(『개벽』 제57호, 1925, p. 70).

어 사전' 등의 제목은 신문 기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어휘를 소개한 것이었다.

『당성』은 '사회상식술어' 『동방평론』은 '사회과학용어문답'을, 『조선지광』은 '무산자사전'이란 제목도 사용했다. 계급의식, 금융자본, 동인도회사, 카르텔, 계급, 대중 조합주의, 독점 등이 사회과학 용어 또는 무산자가 알아야 할 용어로 소개되었다. 1930년대에는 모던어, 유행어, 사회과학용어, 무산자사전, '신문어' 등 다양한 제목으로 어휘가 소개되고 있었다.

〈표 2〉 1930년대 전후 잡지 29종의 경제 어휘소개 현황

	잡지 (소개연도)	경제어휘	제목(저자, 권호)	개수
천도교계열	개벽 (1924~1925)	무산자/ 잉여가치설/ 자본주의/ 생디칼리즘/ 임금철칙/ 노농운동*/ 민중*/ 계급투쟁*	重要術語辭典(朴英熙, 49, 50, 51)/*最近朝鮮에 流行하는 新術語(57)	8개
	농민 (1932~1933)	착취/ 계급/ 자작농창정/ 미곡법/ 계급의식/ 산업혁명/ 자급경제/ 금융/ 금융자본/ 공업동원 / 자본동원/ 이윤/ 경작권/ 보이콧/ 카르텔/ 길드/ 덤핑/ 생디칼리슴/ 신디케이트/ 간접세/ 관세/ 최혜국조관/ 정화/ 종가세/ 종량세/ 해외정화	術語解說(3-4, 3-6, 3-8, 3-11, 4-2, 4-3, 4-5, 4-6)	26개
	黨聲 (1932)	계급의식/ 금융자본/ 동인도회사/ 카르텔	社會常識術語(1)	4개
	별건곤 (1930~31)	카르텔*/ 경제공황/ 골든에이지(황금시대)/ 콜/ 공장법/ 쿨리/ 공산데이/ 그레샴 법칙/ 국수회(國粹會)/ 프로덕션**/ 쿠폰/ 클리어링세일	*新語大辭典(26)新語辭典(27, 28, 29, 30)/**新語大辭典(33)/新語大辭典(37)	13개

	신여성 (1925, 1931)	간이생활/ 커미션/ 네트프라이스*/ 룸펜 부르주아/ 옥션	시시로 보면서 모를 말 辭典(3-1, 3-2)/모던流行語辭典(5-4)	5개
	신인간 (1927~1929)	샐러리*/ 샐러리맨*/ 캐피탈리즘*/ 계급*/ 스트라이크*/ 슬레이브*/ 디파트먼트 스토어*/ 체크*/ 트레이드마크*/ 가격/ 기업/ 가내공업/ 가내노동/ 가변자본/ 계급투쟁/ 공황/ 간접세/ 관세/ 관업/ 공제조합/ 공동경영/ 국수회(國粹會)/ 국제노동규약/ 국제노동회/ 금융자본/ 공업동원/ 공장법/ 공장위원회/ 공장폐쇄/ 교환가치/ 공장제수공업/ 고혈제도/ 길드/ 농업정책/ 농업자본/ 농업신용/ 메이데이**/ 보이콧**/ 사보타주**/ 정관**/ 경제적 공황**/ 마크**/ 보너스**/	*常識外來語(蓮波, 一記者, 14, 16, 17) 常識辭典(도현, 石靜, 17, 18, 19, 21, 22, 24, 25)**新人間辭典(編者, 36)	44개
	실생활 (1932)	모라토리엄/ 쿨리/ 서비스/ 스트라이크	新術語略解(3-1, 3-6, 3-10)	4개
	조선농민 (1926)	간이생활/ 간이보험/ 계급/ 계급동정/ 계급투쟁/ 계급의식/ 계급타파/ 가정부업/ 과대자본/ 관업/ 관세	術語辭典(편집부, 2-2, 2-3)	11개
	천도교회월 (1928~1930)	적자/ 보증준비/ 바자/ 사보타주/ 그린하우스/ 쿨리/ 아이더블유더블유(IWW 세계산업노동자동맹)/ 모라토리엄/ 쿠폰/ 헝거스트라이크/ 산업혁명*/ 재외정화*/ 금융자본*/ 최혜국조관*/ 소부르주아*/ 실업자*	新聞語(256, 257)外來語解釋(檀正, 206, 208 209, 212) /*術語解說(檀正, 231, 232, 234, 238)	16개
	학생(1929)	윈도트리밍/ 바자/ 룸펜프롤레타리아/ 메뉴	新語辭典(1,2,3)	4개
	10종			135개

사회주의계열	사상운동(1926)	노동총동맹(C·G·T)/ 생디칼리즘/ 아이더블유더블유(IWW 세계산업노동자동맹)/ 사보타주*/ 신디케이트*/ 산업혁명**	新術語解釋(海山, 3-2)/*術語解釋(K, 3-4)/**新術語解釋(李友狄, 3-6)	6개
	조선지광(1927~1932)	경제투쟁/ 자연생장적 의식/ 트러스트/ 가격/ 가내공업/ 가내노동/ 가변자본/ 계급/ 계급투쟁/ 공동경영/ 공제조합/ 간접세/ 공업동원/ 공장법/ 공장위원회/ 공장제수공업/ 공장폐쇄/ 공황/ 관세/ 교환가치/ 국수회(國粹會)/ 국제노동규약/ 국제노동회의/ 금융자본/ 관업/ 가족경제/ 기계공업/ 가내공업/ 가족임금/ 관세정책/ 금본위/ 금은비가/ 간이보험/ 길드/ 금화유출점/ 금화수입점/ 쿨리/ 금위체본위/ 건강보험법/ 경공업/ 경제제도/ 경제조직/ 경화/ 공유재산/ 연화/ 사회사(私會社)/ 공업자본/ 공장제도/ 공회(工會)/ 공회사(公會社)/ 공칭자본/ 응모자본/ 경작권/ 권공장(勸工場)/ 경작금지/ 내국관세/ 농민계급/ 농민운동/ 농업사회주의/ 농업협동조합/ 노예해방/ 농촌문제/ 농민노동당/ 단세주의/ 대규모생산/ 데파트먼트 스토어/ 단체협약/ 단체교섭권/ 덤핑/ 동업조합운동/ 당좌감정/ 도시경제/ 대중조합주의*/ 독점*/ 트럭식*	新語解釋(64, 69, 71, 74, 78, 79, 80, 83, 84, 85, 86, 87, 88, 89, 90, 91, 93)/新語解釋(94)/*無産者辭典(100)	75
	비판(1932~1933)	가변자본/ 가내공업/ 가내노동/ 룸펜 프롤레타리아트/ 이윤/ 부재지주/ 여덟시간노동제, 8시간노동제/ 보이콧/ 부인임금/ 부재자본가/ 블랙코트	批判辭典(2-10, 3-1, 3-4)	11개

	전선 (1933)	패닉/ 로크아웃/ 생산수단/ 클로즈드 숍/ 룸펜 프롤레타리아트/ 마켓/ 보이콧/ 계급층/ 룸펜/ 생디칼리슴/ 하층건축, 하부구조/ 소시민층/ 제너럴 스트라이크(제네스트)/ 농민운동/ 부재지주/ 스캡	全線用語(1-1, 1-2, 1-3, 1-5)	16개
	공제 (1920)	온정주의/ 해양의자유/ 공설시장/ 공장법/ 백수노동자	通俗流行語(若水, 1, 2)	5개
	5종			113개
대중종합잡지	동방평론 (1932)	계급	社會科學用語問答(1)	1개
	대중공론 (1930)	계절노동/ 가족경제 / 공업/ 공업동원/ 경제투쟁/ 공대회의(공장대표자회의)/ 공업적 봉건주의/ 공제조합/ 귀족적조합/ 보이콧/ 경리생산/ 영후보/ 착취/ 횡단조합/ 산업의 합리화/ 소비조합/ 아이더블유더블유(IWW 세계산업노동자동맹)/ 자본축적	新術語辭典(편집부, 2-2, 2-5, 2-7)	18개
	모던조선 (1936)	샐러리/ 샐러리맨	모던語辭典(1)	2개
	신동아 (1931~1936)	콘체른/ 바겐세일/ 입모차압/ 크레디트/ 룸펜/ 트랙터/ 쿠폰/ 옥션/ 패닉(공황)/ 헝거 스트라이크/ 로크아웃(공장폐쇄)/ 스캡/ 갤러리/ 서비스/ 아이더블유더블유(IWW)/ 체인스토어/ 디파트먼트스토어/ 샐러리맨/ 사보타주/ 덤핑/ 소부르주아/ 덤핑/ 쿨리/ 주야은행/ 루블문제/ 룸펜 인텔리겐치아/ 도색조합	모던語(1,2,5, 7, 2-12, 3-1,3-2,3-3, 3-4, 3-5, 3-9, 5-9, 5-10, 6-6, 6-7, 6-9)	27개
	사해공론 (1935)	레테르/ 디파트(백화점)/ 로크아웃(공장폐쇄)/ 마켓/ 바(술집)/ 뱅크/ 서비스/ 스톡	新語集(1-2)	8개
	5종			56개

기타	가톨릭 청년 (1933)	메이데이/ 보이콧/ 제네스트(제너럴스트라이크)/ 헝거스트라이크(헝스트)	新語放送局(1)	5개
	桂友 (1932)	캐치/ 마네킹/ 바(술집)/ 팁/ 보너스/ 샐러리맨/ 덤핑/ 디플레이션/ 이코노미/ 인플레이션/ 지수/ 갤러리/ 룸펜, 방랑자/ 서비스/ 크레디트	現代語와 流行語 解說(12)	15개
	철필(1931)	보이콧	新聞語辭典(2-1)	1개
	신만몽 (1932)	블랙코트/ 스페셜세일즈	모던語辭典(4)	2개
	我等 (1931~1932)	가격/ 가내공업/ 가내노동/ 가변자본/ 객관적 상세/ 건강보험법/ 경기/ 경제관계/ 경제적 구조/ 경제투쟁/ 불경기/ 공장분회/ 공제조합/ 공채/ 공황/ 국제노동사무국/ 국제노동회의	我等辭典(1-3, 1-4, 1-5, 2-2·3)	17개
	월간매신	자본이자세/ 블록경제/ 호혜관세/ 평가절하/ 금은복본위제/ 바(술집)	新聞語解義(2, 4)	6개
	人道 (1929~1930)	물가와 임금의 관계/ 영소작제/ 온정주의/ 근로소득	短語辭林(편집실, 6, 8)	4개
	學燈 (1934~1935)	골든에이지/ 샐러리/ 덤핑/ 룸펜/ 보너스/ 마켓/ 디파트/ 길드/ 쇼윈도우/ 덤핑/ 레테르/ 마켓/ 바	新語辭典(7, 14)	13개
	한글	불하(내놓기)	새말고쳐쓰기(4-6)	1개
	9종			64개
	29종 합계			368개

※ 경제 어휘란의 *, **표시와 표시가 없는 어휘는 제목란 *, **표시와 표시가 없는 코너에 등장한 것이다.

한편, 소개된 경제·노동 관련 어휘는 잡지발행 주체의 정치적 성향과 관련하여 다소 차이를 보였다. 중복으로 소개된 어휘를 포함하여 천도교 계열 잡지가 소개한 경제·노동 관련 어휘는 135개, 사회주의 계열 잡지가 소개한 것은 113개였다. 그중 두 계열 잡지 모두에서 소개한 어휘를 제외하면, 천도교 계열 잡지의 어휘는 60개, 사회주의 계열 잡지의 어휘는 58개였다.

〈표 2〉 천도교와 사회주의 계열 잡지에서 서로 중복되지 않은 어휘

사회주의 계열 잡지와 중복되는 않은 천도교 계열 잡지의 어휘	천도교 계열 잡지와 중복되지 않은 사회주의 계열 잡지의 어휘
가정부업/ 간이생활/ 계급동정/ 계급의식/ 계급타파/ 고혈제도/ 골든에이지/ 공산데이/ 과대자본/ 쿠폰/ 그레샴법칙/ 그린하우스/ 기업/ 네트프라이스/ 노동운동/ 노동총동맹/ 농업신용/ 농업자본/ 농업정책/ 동인도회사/ 룸펜 부르조아/ 마크/ 메뉴/ 메이데이/ 모라토리엄/ 무산자/ 미곡법/ 민중/ 바자/ 보너스/ 샐러리/ 샐러리맨/ 서비스/ 소부르주아/ 실업자/ 윈도트리밍(가게앞 광고)/ 임금철칙/ 잉여가치설/ 자급경제/ 자본동원/ 자본주의/ 자작농창정/ 재외정화/ 적자/ 정관/ 정화/ 종가세/ 종량세/ 착취/ 체크/ 최혜국조관/ 카르텔/ 커미션/ 콜/ 클리어링세일/ 트레이드마크/ 프로덕션/ 해외정화/ 헝거스트라이크	가족경제/ 가족임금/ 건강보험법/ 경공업/ 경작금지/ 경제제도/ 경제조직/ 경제투쟁/ 경화/ 계급층/ 공설시장/ 공업자본/ 공유재산/ 공장제도/ 공칭자본/ 공회사/ 권공장/ 금은비가/ 금화수입점/ 금화유출점/ 기계공업/ 내국관세/ 농노해방/ 농민계급/ 농민노동당/ 농민운동/ 농업사회주의/ 농업협동조합/ 농촌문제/ 단체교섭권/ 단체협약/ 당좌감정/ 대규모생산/ 대중조합주의/ 도시경제/ 독점/ 동업조합운동/ 룸펜/ 마켓/ 백수노동자/ 부인임금/ 부재자본가/ 부재지주/ 블랙코트/ 사회사/ 생산수단/ 소시민층/ 스캡/ 8시간노동제/ 온정주의/ 응모자본/ 자연생장성적 의식/ 제너널스트라이크/ 클로즈드숍/ 트러스트/ 트럭식/ 하층건축(경제적 구조)/ 해양의 자유/

서로 중복되지 않는 어휘는 두 계열잡지의 담론지형의 차이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천도교 계열의 잡지는 노동, 농업, 자본, 정책, 새로운 문화적 현상과 관련한 어휘 등으로 계급, 정파에서 특정한 편향성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반면 사회주의 계열의 잡지는 공장, 계급 운동과 관련한 어휘가 더 많이 등장하고, 공업과 공장 관련 어휘가 더 많이 등장했다. 두 계열의 잡지가 선정한 어휘의 차이는 그들이 생산되는 담론의 자장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3. 어휘의 시기별 특징

잡지에 소개된 경제·노동 관련 어휘는 1926년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다양한 잡지의 발행이 증가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1926년 농업공황과 뒤이은 세계공황으로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계급 갈등이 표면화되었기 때문이었다. 1924년~1925년 사이 「중요술어사전」과 「최근조선에 유행하는 신술어」를 통해 656개의 어휘를 소개했던 『개벽』의 경우, 경제·노동 관련 어휘는 불과 8개에 불과했다. 반면 『개벽』와 같은 천도교 계열의 잡지였던 『신인간』은 1927년~1929년 사이 282개의 어휘를 소개했고, 그중 경제·노동 관련 어휘는 44개였다.

1930년대 초반에는 경제·노동 관련 어휘의 수는 더욱 증가했다. 『대중공론』은 1930년 44개의 어휘 중 18개를, 『아등』은 1931년~1932년 사이 53개의 어휘 중 17개를, 『농민』은 1932년~1933년 사이 77개의 어휘 중 26개를 소개했다. 1927년~1932년 사이 231개의 어휘를 소개했던 『조선지광』은 75개로 경제·노동 관련 어휘 비중이 가장 컸다.

1926년 『사상운동』과 『농민』에 소개된 경제·노동 관련 어휘

17개 중 자본경영 관련 어휘는 과대자본, 관업, 신디케이트, 산업혁명 4개였지만, 계급, 노동조직과 관련된 어휘는 9개였다. 그 중 노동총동맹(C.G.T)[22], 생디칼리즘[23], 아이더블유더블유(IWW, 세계산업노동자동맹)[24]은 노동운동 조직의 외국 사례를 소개한 것이었다.

계급, 계급동정, 계급투쟁, 계급의식, 계급타파는 모두 『조선농민』이 소개한 어휘였다. 계급을 "돈 많은 사람들을 유산계급이라 하고 돈 없이 노동하는 사람을 무산계급이라 하고 글자 아는 사람을 지식계급이라 함"이라고 설명한 것은 당시 조선 사회에서 유통되고 있었던 계급의 분류를 나열한 것이었다.

"자본가와 노동자, 지주와 소작인, 부자와 빈자, 귀족과 평민, 정복자와 피정복자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싸움을 말함"이란 '계급투쟁'에 대한 설명과 "인류의 평등을 주장하여 계급에 의한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기를 창도하는 노동문제, 농촌문제 등에서 떳떳이 쓰는 말"이란 '계급타파'에 대한 설명에는 계급 갈등과 차별 철폐에 초점이 두어져 설명되었다.[25] 완전한 계급철폐가 아니라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는 의미가 부각되고 있었다. 나아가 계급을 '노동문제, 농촌문제 등에서 떳떳이 쓰

22) Confederation Generale du Travil의 약칭인데 통상 '노동총동맹'이라고 번역한다(『사상운동』 제3권 2호, 1926, p. 34).

23) 사회조직에 대한 일종의 철학적 사상과 또한 실제 사회운동의 한 경향으로 … 생디칼리슴은 아직껏 발육 중으로 일정한 정의를 말하기는 곤란하나 대체로 말하면 노동자의 이익을 약탈하는 기초인 자본주의적 제도를 폐지하고 완전한 계급적 지배와 계급적 약탈에서 자유로 탈출해서 새로운 사회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그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서 조성한 노동조합주의의 일종이다(『개벽』51, 1924, p. 31), 비의회적이며 비군국적이며 비애국적이다(『사상운동』 제2권 1호, 1926, p. 34).

24) 미국의 일 노동단체로서(Industrial Workers of the World)(세계산업노동동맹)의 머리글자만을 적취하여 통상 부르는 약칭이다(『사상운동』 제3권 2호, 1926, p. 35).

25) 『조선농민』 제2권 2호, 1926, p. 12.

는 말'로 표현한 것은 사회주의 계열이 전유하고 있었던 '계급'이란 어휘의 불온한 의미를 탈각시켜서 천도교 계열의 계급담론 안에 포섭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었다.

1927년 사회주의 계열의 『조선지광』은 계급을 "공통한 경제적 내지 정치적 이해를 가진 사회군으로서 다른 사회군에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26], 계급투쟁을 "관계에 입각한 사회군의 길항"이라고 설명했는데, 그 직후 천도교 계열의 『신인간』은 이 어휘를 각각 "경제적 내지 정치적 이해가 공통되는 한 사회군"과 "사회군의 항쟁"으로 설명했다.[27] 『조선지광』의 의미 중 "다른 사회군에 대립"이란 의미를 빼고 그 나머지를 차용한 것이었다.[28] 1925년~1926년 사이 계급 관련 어휘의 의미가 설명되었다는 점은 '계급'이 사회적 시민권을 획득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계열 잡지에서 계급 관련 어휘의 의미 차이가 발생했던 것은 계급 문제에서 두 계열의 담론이 서로 경합했음을 알려준다.

〈표 4〉 시기별 잡지의 경제어휘

연도	어휘	잡지명	개수
1920년	온정주의/ 해양의 자유/ 공설시장/ 공장법/ 백수노동자	『공제』	5개
1924년	무산자/ 잉여가치설/ 자본주의/ 생디칼리즘/ 임금철칙	『개벽』	5개
1925년	간이생활/ 커미션/ 네트프라이스/ 노농운동/ 민중/ 계급투쟁	『개벽』, 『신여성』	5개
1926년	노동총동맹(C.G.T)/ 생디칼리슴/ 아이더블유 더블유(IWW, 세계산업노동자동맹)/ 간이생활	『사상운동』, 『조선농민』	17개

26) 『조선지광』 제71호, 1927, p. 94.

27) 『신인간』 제18호, 1927, p. 22.

28) 계급과 계급투쟁을 설명한 『조선지광』은 9월, 『신인간』은 11월에 발행되었다.

	/ 간이보험/ 계급/ 계급동정/ 계급투쟁/ 계급의식/ 계급타파/ 가정부업/ 과대자본/ 관업/ 관세/ 사보타주/ 신디케이트/ 산업혁명		
1927년	경제투쟁/ 자연생장성적 의식/ 샐러리/ 샐러리맨/ 캐피탈리즘/ 트러스트/ 계급/ 스트라이크/ 슬레이브/ 가격/ 가내공업/ 가내노동/ 가변자본/ 계급투쟁/ 공동경영/ 공제조합/ 간접세/ 디파트먼트 스토어/ 체크/ 트레이드마크/ 기업/ 공황/ 관세/ 관업/ 공업동원/ 공장법/ 공장위원회/ 공장제 수공업/ 공장폐쇄/ 교환가치/ 국수회/ 국제노동규약/ 국제노동회의/ 금융자본	『신인간』, 『조선지광』	35개
1928년	공동경영/ 국수회/ 국제노동규약/ 국제노동회의/ 금융자본/ 바자/ 사보타주/ 공업동원/ 공장법/ 공장위원회/ 공장폐쇄/ 교환가치/ 공장제 수공업/ 고혈제도/ 길드/ 그린하우스/ 쿨리/ 아이더블유더블유(IWW, 세계산업노동자동맹)/ 모라토리엄/ 가족경제/ 기계공업/ 농업정책/ 농업자본/ 농업신용/ 가내공업/ 가족임금/ 관세정책/ 쿠폰/ 헝거 스트라이크/ 금본위/ 금은비가	『신인간」, 『조선지광』, 『천도교회월보』	31개
1929년	간이보험/ 윈도트리밍/ 바자/ 길드/ 금화유출점/ 금화수입점/ 룸펜 프롤레타리아트/ 메뉴/ 메이데이/ 보이콧/ 사보타주/ 쿨리/ 금위체본위/ 정관/ 경제적 공황/ 마크/ 보너스/ 건강보험법/ 경공업/ 경제제도/ 경제조직/ 경화/ 공유재산/ 연화/ 사회사/ 공업자본/ 공장제도/ 공회(노동조합)/ 공회사/ 공칭자본/ 응모자본/ 경작권/ 권공장/ 경작금지/ 내국관세/ 농민계급/ 농민운동/ 농업사회주의/ 농업협동조합/ 물가와 임금의 관계/ 영소작제도	『신인간」, 『조선지광』, 『인도』, 『학생』	41개
1930년	내국관세/ 농노해방/ 농촌문제/ 농민노동당/ 카르텔/ 경제공황/ 골든에이지/ 콜/ 산업혁명/ 재외정화/ 금융자본/ 계절노동/ 가족경제/ 공업/ 공업동원/ 단세주의/ 최혜국조관/ 공장법/ 쿨리/ 공산데이/ 그레샴 법칙/ 소부르주아/ 대규모생산/ 디파트먼트 스토어/ 단체협약/ 경제투쟁/ 공대회의(공장대표자회의)/ 공업적	『조선지광』, 『인도』, 『천도교회월보』, 『별건곤』, 『대중공론』	47개

	봉건주의/ 공제조합/ 귀족적 조합/ 보이콧/ 영리생산/ 영후보/ 착취/ 횡단조합/ 국수회/ 산업의 합리화/ 소비조합/ 아이더블유더블(IWW, 세계산업노동자동맹)/ 자본축적/ 프로덕션/ 온정주의/ 근로소득/ 실업자/ 단체교섭권/ 덤핑/ 동업조합운동		
1931년	당좌감정/ 도시경제/ 보이콧/ 쿠폰/ 클리어링 세일/ 룸펜 부르주아/ 옥션/ 가격/ 가내공업/ 가내노동/ 가변자본/ 객관적 상세(客觀的狀勢)/ 건강보험법/ 콘체른/ 바겐세일/ 입모차압/ 크레디트/ 경기/ 경제관계/ 경제적 구조/ 경제투쟁/ 불경기	『아등』, 『신동아』, 『조선지광』, 『철필』, 『별건곤』, 『신여성』	22개
1932년	모라토리엄/ 대중조합주의/ 독점/ 트럭식/ 공장분회/ 공제조합/ 공채/ 공황/ 국제노동사무국/ 국제노동회의/ 룸펜/ 가변자본/ 가내공업/ 가내노동/ 착취/ 계급/ 적자/ 트랙터/ 계급의식/ 금융자본/ 쿨리/ 보증준비/ 자작농창정/ 미곡법/ 계급의식/ 산업혁명/ 자급경제/ 캐치/ 마네킹/ 바/ 팁/ 보너스/ 샐러리맨/ 덤핑/ 디플레이션/ 이코노미/ 인플레이션/ 지수/ 갤러리/ 서비스/ 크레디트/ 금융/ 스트라이크/ 룸펜 프롤레타리아트/ 이윤/ 공업동원/ 자본동원/ 쿠폰/ 블랙코트/ 스페셜 세일즈	『계우』, 『농민』, 『당성』, 『동방평론』, 『아등』, 『신동아』, 『조선지광』, 『비판』, 『실생활』, 『신만몽』, 『천도교회월보』	53개
1933년	패닉/ 로크아웃/ 생산수단/ 클로즈드 숍/ 룸펜 프롤레타리아트/ 마켓/ 보이콧/ 부재지주/ 8시간노동제/ 옥션/ 이윤/ 경작권/ 계급층/ 룸펜/ 생디칼리슴/ 하층건축, 하부구조/ 헝거스트라이크/ 스캡/ 소시민층/ 제너럴 스트라이크(제네스트)/ 갤러리/ 서비스/ IWW(아이더블유더블유)/ 체인스토어/ 카르텔/ 길드/ 덤핑/ 신디케이트/ 디파트먼트 스토어/ 샐러리맨/ 농민운동/ 부재지주/ 스캡/ 간접세/ 관세/ 최혜국조관/ 정화/ 종가세/ 종량세/ 해외정화/ 부인임금/ 부재자본가/ 블랙코트/ 메이데이/ 보이콧/ 사보타주	『농민』, 『비판』, 『신동아』, 『전선』, 『카톨릭청년』	45개

1934년	자본이자세/ 블록경제/ 호혜관세/ 평가절하/ 금은복본위제/ 바(술집)/ 골든에이지/ 샐러리/ 덤핑/ 룸펜/ 보너스/ 마켓/ 디파트/ 길드/ 쇼윈도우	『월가매신』, 『학등』	15개
1935년	덤핑/ 레테르/ 마켓/ 바(술집)/ 디파트/ 로크아웃/ 뱅크/ 서비스/ 스톡/ 소부르주아	『신동아』, 『학등』, 『사해공론』	10개
1936년	불하/ 덤핑/ 쿨리/ 주야은행/ 루블 문제/ 룸펜 인텔리겐치아/ 샐러리/ 샐러리맨/ 도색조합	『모던조선』, 『신동아』	9개

1927년 이후 경제·노동 관련 어휘는 크게 증가했다. 27년에는 45개, 28년에는 31개, 29년에는 42개, 30년에는 47개의 어휘가 소개되었다. 물론 중복어휘가 상당수 존재하기는 했지만, 시기별로 차이도 있었다.

먼저 이 기간 관련 어휘 소개를 주도했던 잡지는 『신인간』과 『조선지광』이었다. 『천도교회월보』, 『인도』, 『학생』, 『별건곤』, 『대중공론』 등도 경제·노동 관련 어휘를 소개하고 있었지만 앞서 두 잡지에 비해 그 수가 많지 않았다.

1927년~1930년 사이 계급 운동과 관련해서는 투쟁형태, 투쟁조직, 투쟁에 대한 대응 형태 등과 관련한 어휘들이 소개되고 있었다. 1926년 『사상운동』에 태업으로 처음 소개되었던 사보타주는 1928년 『천도교회월보』, 1929년 『신인간』에도 소개되었다. 1927년에는 경제투쟁, 자연생장성적 의식, 스트라이크, 공장위원회, 공장폐쇄 등 노동운동과 관련한 어휘들이 새롭게 등장했다. '계급투쟁'이란 추상적 의미의 어휘보다 구체적인 실천행위를 지시하는 어휘가 소개되었다.

"노동자가 그 노동조건 및 생활 조건을 개선하려고 그들의 노동 임금을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팔아먹기 위하여 고용주에게 대항하는 집합투쟁"으로 설명된 경제투쟁이나, "사회민주주의적 의

식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노동자 자신의 힘만으로 발전시킨 조합주의적 의식"[29]으로 설명된 자연생장성적 의식이란 어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운동은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알려주는 것이었다. 또한 동맹파업인 스트라이크, 노동쟁의에 대응한 자본가의 행위인 공장폐쇄, 노동자와 자본가의 협의 기구인 공장위원회[30] 등이 소개되었다. 노동운동에 적대적인 단체였던 국수회도 소개되었다.[31]

『조선지광』에서 1927년에 소개된 어휘가 1928년에는 『신인간』에 다시 소개되는 경우들이 많았지만, 1927년 이후로는 농업 관련 어휘와 가계와 금융 관련 어휘가 새롭게 등장했다. 농업정책, 농업자본, 농업신용[32]은 2차 산미증식계획이 수리조합에 대한 대부를 통해 진행된 상황에서 당시 농업 문제를 설명할 때 자주 쓰였던 어휘였다.

농업정책에 대한 설명은 현재와 그 의미가 다르다. "협의로 해석하면 농업의 개량발달을 촉진하여 농민의 소위 행복을 증진시키려는 근대적 국가 혹은 공법인이 행하는 정책을 말하는 것

29) 『조선지광』 제64호, 1927, p. 45.

30) 구주대전 후의 노동계급의 ××× 기세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자본가가 의식적으로 설치한 노동자 측 대표와 공장주 측 대표와의 합동위원회이니 고용조건과 공장설비에 관한 협의를 하여 공장주에게 실시를 요구하는 기관이다(『조선지광』 제74호, 1927, p. 88; 『신인간』 제21호, 1928, p. 29).

31) 일본 전국에 편재한 단체의 하나이니 1919년 당시에 내무대신이던 도코나미 다케지로(床次竹二郎, 후일 政友本黨 총재)가 창설한 바이다. 창립 이래로 소작쟁의 노동쟁의 기타 연설회 등에 간섭하여 반동하는 자이나 그 구성분자는 대개 군벌과 보수적 계급들이다(『조선지광』 제74호, 1927, p. 89; 『신인간』 제21호, 1928, p. 28).

32) 반제행위를 신임하고 행하는 농업자본, 농업신용을 분류하면 그의 용도에 의하여 토지소유신용, 토지개량신용, 경영신용의 세 가지로 구분되어 채무자가 제공하는 담보에 의하여 대인신용, 동산신용, 부동산신용으로 나뉘게 된다(『신인간』 제25호, 1928, p. 48).

이지만 근래에는 이것을 광의로 해석하여 이러한 목적을 위한 사인의 단체와 사인의 실행하는 정책까지도 농업정책"[33]이라는 것이다. 개인의 실천행위를 포괄적으로 정책의 영역에서 설명한 것은 1926년 천도교 계열의 농민사에서 귀농 운동을 펼친 이후 다양한 농촌운동이 전개되어 나아갔던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가계와 관련해서는 가족경제, 가족임금이란 어휘가 소개되고 있 었다. "고립적인 가족이 단위가 되어 가족이 몸소 생산하고 몸소 소비하는 바의 자족경제를 말함"이라는[34] 가족경제는 "개인보다도 가족을 경제단위로 하여 약간의 노동자(夫, 妻, 子)로 구성된 가족의 총수입으로 말하는 임금"이란 가족임금과는 전혀 다른 생산방식에 기초한 것이었지만, 두 어휘가 동시에 소개되고 있었다는 점은 공황이란 경제 위기와 관련이 있었다.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생산과 소비가 가족 단위에서 해결되기 위해서는 자급자족적인 가족경제를 이루거나 가족 구성원 전체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을 확보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가족의 가처분소득을 증가해야 한다는 주장은 1920년대 초반 총독부의 '부업장려' 캠페인을 통해 등장했고, 물산장려운동을 추진했던 민족주의 정치 세력 또한 부업장려를 주장했다. 1926년 '가정 부업'이란 어휘가 소개된 이후 유사한 의미인 '가내공업', '가내노동' 등의 어휘가 계속 등장했다. 이들 어휘는 가장의 노동력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1929년과 1930년에는 다양한 어휘들이 양적으로 증가했다. 자본과 금융 관련 어휘가 새롭게 소개되었으며, 농촌 관련 어휘들도

33) 『신인간』 제24호, 1928, p. 47.
34) 『조선지광』 제78호, 1928, p. 54.

증가했다. 노동운동의 구체적 실천들과 관련된 어휘도 다수 소개되었다.

자본과 금융 관련 어휘 중에는 금본위제의 회귀란 국제 통화·금융 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금화유출점, 금화수입점, 본위체본위, 콜(금리), 경화, 연화 등의 어휘가 소개되었다. 공황으로 인한 자본축적 위기와 자본시장의 변화가 발생하면서 자본 운동과 관련된 어휘 소개도 증가했다. 공업자본, 공칭자본, 응모자본, 내국관세, 카르텔, 재외정화, 금융자본, 대규모 생산, 공업적 봉건주의, 영리생산, 산업의 합리화, 자본축적, 프로덕션, 동업조합운동 등이 등장했다. 자본축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정책과 방법 등이 제기되고 있었던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1929년 공업생산량을 100으로 했을 때 1930년에는 95, 1931년 92로 감소했다.[35] 조선은 1929년 공장생산액을 100으로 했을 때 1930년에는 85.9, 1931년에는 77.3으로 일본에 비해 감소폭이 더 컸다.[36] 공업자본, 공장제도, 권공장, 대규모 생산, 영리생산은 공업생산과 관련한 담론의 확산 과정에서 사용된 어휘였다. 그중 "자본가적 생산만을 한정한 것"으로 설명된 '영리 생산'이란[37] 어휘는 자본가적 생산이 아닌 생산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생산자를 위한 생산조합의 생산과 자본가적 생산을 구분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었다.

농촌경제의 피폐화가 진행되고, 민족주의 정치 세력이 농촌문제 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면서 농촌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어휘가 증가했다. 농민계급, 농민운동, 농업사회주의, 농업협동조합,

---

35) 今田寬之, 「1929~33年 世界大恐慌について」, 日本銀行金融研究所, 『金融研究』 第7卷1号, 1998, p. 116.

36) 국가통계포탈에서 『조선총독부통계연보』의 공업생산액에 따라 1929년 공장생산 총액 327,007,290원을 100으로 하여 산출했다.

37) 『대중공론』 제2권 5호, 1930, p. 59.

영소작제도 등에 대한 소개는 날로 악화되는 농촌경제 문제에 대한 다양한 대안들이 매체를 통해 등장했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협동조합을 "소비조합과 생산조합 신용조합 등을 한 덩어리로 한 농민기관"이라고 설명한 것은[38] 민족주의 정치세력 내부에서 다양한 형태로 제기된 협동조합론의 차이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농촌협동조합론의 차이는 1930년 이후 매체를 통해 본격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농업은행을 중심으로 농업경영의 합리화를 추구한 동아일보 주도층과 동우회 일부 세력의 논의, 중간 상인의 이윤을 철폐하고 신용조합을 통한 민간 차원의 자작농창정을 추진한 대다수의 민족주의 정치세력, 그리고 생산조합을 중심으로 농촌 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했던 천도교의 조선농민사와 전조선 농민조합 세력 등의 논의가 제기되었다.[39]

보이콧, 사보타주, 공장법, 공대회의(공장대표자회의), 횡단조합 등 노동조직, 운동방식과 관련한 어휘는 이시기에도 지속적으로 등장했지만, 노사협의와 관련한 단체협약, 단체교섭권이 소개되고, 물가와 임금의 관계, 근로소득, 실업자 등 임금생활자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어휘도 새롭게 소개되었다. 특히 "항상 서로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다. 물가가 구성되는 중요소가 임금인 동시에 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또한 물가인 까닭"이란[40] 설명은 임금과 물가의 순환 관계에 대한 인식이 일반화된 것이 이때였음을 알려준다.

---

38) 『조선지광』 제88호, 1929, p. 61.

39) 이 시기 민족주의 계열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농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농촌협동조합운동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조형렬, 「1920년대 후반~1930년대 전반기 민족주의 계열의 농촌협동조합론-제기 배경과 경제적 지향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회, 『한국사학보』 제61호, 2015, pp. 584-616.

40) 『인도』 제6호, 1929, pp. 70~71.

1929년 이전 계급, 노동운동과 관련한 어휘가 많이 소개되었다면, 1929년과 1930년에는 자본, 금융, 농촌, 임금, 노사협의 등과 관련한 어휘가 급증했다. 여기에는 잡지의 양적 증가와 관련되어 있지만, 노동자와 자본가 모두가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경험해 가면서 생산성의 증대와 경제생활의 안정화에 대한 지향이 확산되었던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931년에서 1936년 사이에 소개된 어휘는 이제까지 소개된 어휘의 영어표현, 모더니티 문화 현상을 반영한 어휘들이 다수 소개되었다. 1931년은 어휘 소개의 경향이 한자 어휘에서 영어 어휘로 넘어가는 기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보이콧은 비동맹, 쿠폰은 우대권, 할인권, 입장권 등으로, 콘체른은 재벌, 바겐세일은 대염매, 크레디트는 신용이란 한자 어휘로 의미를 설명했다. 물론 "일 년에 한 번이나 두세 번 상품 전부의 전환방법으로 버리는 물건가치, 막 싸게 파는 것"[41]을 대체할 한자 어휘가 제시되지 않은 클리어링 세일도 있었다.

1936년 이종극은 『선화양인모던조선외래어사전』에 1930년 이후 조선의 언론매체에서 사용된 외래어 18008개를 수록했는데 그 대부분은 영어 어휘였다.[42] 『모던조선외래어사전』에 수록된 어휘와 비교해 볼 때 잡지에 소개된 영어 어휘는 매우 적었다. 이는 지식인의 글에서 영어 어휘의 사용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조선인 일반으로 확산된 것은 많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한다.

---

41) 『별건곤』 제37호, 1931, p. 123.

42) 이종극, 『鮮和兩人 모던朝鮮外來語辭典』, 한성도서주식회사, 1936.

4. 중복 소개된 어휘와 그 의미 차이

〈표 4〉 잡지 29종에서 소개한 경제·노동 관련 어휘 중 중복어휘 현황

중복회수	중복어휘	개수
7회	덤핑/ 보이콧/ 스트라이크(제너럴스트라이크 2회, 헝거스트라이크 3회 포함)	3개
6회	공장폐쇄(록아웃 5회 포함)	1개
5회	가내공업(가정공업 1회 포함)/ 계급/ 쿨리(苦力)/ 공황/ 디파트먼트스토어/ 금융자본/ 길드	7개
4회	IWW, 세계산업노동자동맹/ 룸펜/ 서비스/ 샐러리맨/ 바(술집)/ 간접세/ 공업동원/ 가변자본/ 가내노동/ 사보타주/ 공제조합/ 마켓/ 공장법/ 계급투쟁/ 생디칼리즘/ 관세	16개
3회	계급의식/ 카르텔/ 가격/ 샐러리/ 국수회/ 관업/ 산업혁명/ 국제노동회/ 경제투쟁/ 보너스/	10개
2회	소부르주아/ 건강보험법/ 바자/ 모라토리엄/ 교환가치/ 내국관세/ 블랙코트/ 경작권/ 국제노동규약/ 부재지주/ 가족경제/ 공장제수공업/ 공동경영/ 간이생활/ 스캡(Scab)/ 갤러리/ 메이데이/ 신디케이트/ 옥션/ 온정주의/ 이윤/ 착취/ 최혜국조관/ 간이보험/ 쿠폰/ 룸펜프롤레타리아	26개

29종 잡지에서 가장 많이 중복해서 소개된 것은 덤핑, 보이콧, 스트라이크였다. 보이콧은 1929년에는 "동맹절교, 동맹배척, 취인거절, 매매거절, 상품 비매(非買)동맹"으로 다양한 거부 운동을 의미했다.[43] 1933년에는 "자본 지주가 등에 대하여 사교 상 업무상의 관계를 끊고 동맹하여 반항하는 뜻"[44] 또는 "비매동맹이라고 번역하니 어떤 목적을 관철하기 위하여 어느 계급 어느 단체 어느 국가가 그 상대방에 향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관계를 중단하는

43) 『신인간』 제36호, 1929, p. 26.
44) 『전선』 제1호, 1933, p. 25.

것"[45]으로 설명되었다. 계급운동의 한 형태로 그 의미가 분명해졌음을 알 수 있다.

스트라이크는 2회 소개되었지만 총파업을 뜻하는 제너럴스트라이크가 2회, 절식동맹파업을 뜻하는 헝거스트라크가 3회 소개되어 '스트라이크'란 어휘는 모두 7회 소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보이콧과 스트라이크가 가장 많이 소개되고 있었다는 점은 이시기 조선사회에서 계급운동이 이슈화되고 있었던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다. 뒤이어 노동운동에 대한 자본가의 대응이었던 록아웃(공장폐쇄 1회 포함)도 6회나 소개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 속에서 산업사회의 경제현상과 관련한 어휘가 중복해서 소개되었다. 계급, 쿨리가 5회, 룸펜, 샐러리맨, 사보타주, 공제조합, 공장법, 계급투쟁, 생디칼리즘이 4회, 계급의식, 국제노동회, 경제투쟁이 3회 소개되었다. 금융자본이 5회, 공업동원, 가변자본이 4회, 카르텔이 3회 소개되었으며, 노동계급에 적대적인 일본 우익조직인 국수회도 3회 소개되었다.

중복 소개된 어휘에 대한 설명에서 의미 차이가 발견되기도 했다. 1920년대 불경기의 심화로 총독부와 물산장려운동의 『산업계』 등에서는 부업을 장려하여 가계 소득의 증대를 도모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가내공업, 가정공업, 가내노동이란 어휘가 등장했다. 1927년에 『조선지광』은 가내공업을 "수공업과 같이 단순한 기구와 단순한 기술에 의하여 가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이름이니 그것은 자기의 사용을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개인 혹은 대공장의 부분적 청부임으로 그들 자본가에게 예속되어 ××하는 공업이다."[46]라고 설명하고, 가내 노동을 "부인, 유년, 소년의 ××××의 하나인바 무산자의 각 가정에서 매우 저렴한 임금을 받는 청

45) 『농민』 제3호, 1933, p. 56
46) 『조선지광』 제71호, 1927년, p. 93.

부노동"[47]으로 설명하여 무산자에 대한 수탈적 성격을 강조했다. 그러나 1931년 『아등』은 이러한 의미를 제거하고 단순히 가내공업을 "수공업자가 대자본가와 상인의 지배 밑에서 부분품을 청부하여 제집 일방에서 자기 또는 제자와 함께 간단한 기구와 기술로써 생산하는 소공업"으로 가내노동은 "각 가정 안에서 하는 수공노동"[48]으로 설명했다. 유사어로 『조선농민』에서는 가정부업을 소개했다.[49]

경제 불황 시대의 생활상을 표현했던 간이생활도 1925년과 1931년의 의미가 달랐다. "생활에 대한 불안 혹은 동요를 피하기 위해서 취하는 생활태도"[50]라는 다소 추상적인 설명에서 "복잡한 생활의 수단 방법을 버리고 생활의 실질만으로 만족하는 일, 즉 말하자면 먹기 위하여 일하기 위하여 이 생활 이외에 욕망을 구하지 않는 일, 생활난이 생기게 되면서부터 생긴 일"[51]이란 설명으로 변화되었다. 임금의 하락 현상으로 인해 가족임금이란 어휘가 만들어지기도 했다.[52] 생계 위기가 더욱 심화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1920년대 후반 농촌의 피폐화가 진행되면서 "노동자가 그 노동조건 및 생활조건을 개선하려고 그들의 노동임금을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팔아먹기 위하여 고용주에게 대항하는 집합투쟁"이란[53] 경

47) 『조선지광』 제71호, 1927년, p. 93.

48) 『아등』 제1권 3호, 1931년, p. 7.

49) 『조선농민』2-2, 1926년, pp. 25-26. 일반가정에서 식사와 바느질 하는 것 외에 또 밖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것 외에 어린이 부인네, 늙은이들이 손으로 사소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말함

50) 『신여성』 제3권 1호, 1925, p. 94.

51) 『조선농민』 제2권 2호, 1926년 p. 26.

52) 『조선지광』 제79호, 1928, p. 67. 임금이 평균가족의 생활비에 가깝다는 의미에서 금일의 임금을 때로는 가족임금이라 칭한다.

53) 『조선지광』 제84호, 1927, p. 45.

제투쟁의 의미에 "노동자가 경제적 요구에 의하여 동맹파업 하는 것과 농민이 지주에 대한 소작료 감하 요구운동 같은 것"[54]으로 농민의 소작료 인하 운동의 의미가 부가되었다.

계급과 관련한 어휘 역시 앞서 언급했듯이 설명 주체에 따라 의미의 강조점이 조금씩 달랐지만, 시기적으로도 변화되어 갔다. 앞서 언급했듯이 1926년 계급 설명이 유형에 대한 것이었다면, 1927년에는 "경제적 내지 정치적 이해가 공통되는 한 사회군[55]" 또는 "생산에서 동일한 역할을 연출하며 생산과정에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 동일의 관계에 선 사람들의 총체"[56]라고 하여 생산구조와 관련하여 설명하거나, "공통한 경제적 내지 정치적 이해를 가진 사회군으로서 다른 사회군에 대립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여 계급의 역학관계로 설명하기도 했다. 1932년에는 "옛날 신분적 계급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회계급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표면상 나타나는 수입 분배의 차를 따라 계급이 생긴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생산 관계가 역사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착취 및 피착취관계를 말한 것"[57]이라고 하여 계급의 발생과 관계를 모두 설명하여 좀 더 풍부한 의미가 첨가되었다. 계급에 대한 설명이 점차 구조적인 관점으로 변화되어 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 갈등은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란 함의가 내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계급'이란 어휘가 조선인 공론장에서 확산되면서 다양한 관련 어휘가 등장했고, 계급은 곧 피착취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등치되어 갔다. "자기의 사회적 경우를 자각하는 일. 자기의 계급이 어

54) 『조선지광』 제84호, 1927, p. 45.
55) 『신인간』 제9호, 1927, p. 22.
56) 『농민』 제3권 1호, 1932, p. 19.
57) 『동방평론』 제1권 1호, 1932년 p. 60.

떻게 된 것을 깨닫는 일"[58]이라고 설명한 계급의식의 의미는 "계급과 계급 사이에서 생기는 압박 피압박, 착취 피착취에 대해서 피압박 피착취자로서 가지는 의식"[59]으로 그 의미가 달라졌고, 좀 더 구체적으로 "지배를 받게 되면 정치적 경제적으로 대단히 불리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지배받는 층이 불평불만을 가지고서 일치해 반항할 생각을 가지게 된다. 이 생각이 경제적으로부터 정치적으로까지 나아갈 때의 의식"[60]으로 설명되었다. 그리고 계급의식을 바탕으로 파생되는 계급동정이란 어휘도 만들어졌다.[61]

"계급과 계급, 즉 지배계급 피지배계급 사이에서 사상출돌 이해 상쟁으로 일어나는 계급전쟁"으로 설명된 계급투쟁의 의미는 "자본가와 노동자, 지주와 소작인, 부자와 빈자, 귀족과 평민, 정복자와 피정복자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싸움을 말함"[62]이라고 하여 정복자와 피정복자, 즉 식민자와 식민지인의 관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이는 '계급'의 의미에 민족문제가 부가된 것이었다.

의미가 급속하게 변화된 어휘도 발견되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룸펜이란 어휘가 4회 등장하지만, 룸펜프롤레타리아, 룸펜부르주아, 룸펜인텔리 등의 어휘를 포함할 경우 '룸펜'이란 단어는 총 7회 소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룸펜 어휘를 처음 소개한 『개벽』은 무산자로 설명했고,[63] 『학생』은 세민, 극빈자, 최하층민으로 설명했다.[64] 이때까지 룸펜은 노골적인 부정의 의미가 담긴 어휘가

58) 『조선농민』 제2권 2호, 1926년, p. 30.
59) 『농민』 제3권 6호, 1932년, p. 61.
60) 『당성』 제1호, 1932년, p. 5.
61) 서로 같은 계급에 있어서 같은 경우를 동정하는 일(『조선농민』 제2권 2호, 1926년 p. 29).
62) 『조선농민』 제2권 2호, 1926, p. 94.
63) 『개벽』 제49호, 1924, p. 69.
64) 『학생』 제3호, 1929, p. 102.

아니었다. 그러나 1931년에는 "폐물과 같은 부자"란 의미로 룸펜부르주아,[65] 1932년에는 부량무산계급,[66] 1933년에는 '부량도'[67]로 설명되어 룸펜의 의미가 매우 부정적으로 사용되었다. 나아가 1936년에는 무생산자[68]로 퇴폐한 지식인을 지시하는 '룸펜인텔리'[69]에서 '퇴폐'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무산자의 총칭으로 사용되기도 했던 룸펜은 5년 후 부랑자, 폐물, 퇴폐 등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오늘날과 달리 카르텔은 매우 긍정적인 의미로 설명되었다. "자본주의 기업가들이 같은 생산업에 종사하면서 판매시장을 얻으려고 너무 싸우기만 하면 다 같이 망하겠으니까 제각기 영업을 방임하지 않을 범위에서 서로 약속을 맺는 경제동맹"[70]이라고 하여 카르텔은 과도한 경쟁을 제한하여 합리적인 생산을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동시에 "농상공은 말할 것 없이 모든 사업가(기업가)들이 자기 업에 독립성을 잃지 않는 정도에서 어떤 조건 아래 서로 결합해 가지고 자유경쟁을 피하고 서로 이익을 보려고 조직하는 체(體)"[71] 또는 "여러 기업가가 각각 독립성을 갖고 결합하는 것"[72]이라고 하여 자본가의 독립성이 강조되기도 했다. 과잉생산, 과도한 경쟁이 공황의 원인이란 인식이 확산된 상황에서 카르텔은 '독점'이라는 폐단보다 경쟁의 제한을 통한 합리

65) 『신여성』, 제5권 4호, 1931; 송철의 외, 앞의 책, p. 160.에서 재인용.
66) 『비판』 제2권 10호, 1932, p. 38.
67) 『전선』 제1권 1호, 1933년, p. 35.
68) 『학등』 제7호, 1934. p. 40.
69) 부랑지식계급. 고등교육을 받았으나 취직난, 실업, 질병, 빈곤 또는 사상적 혼란으로부터 일정한 생활 조건과 목적을 잃어버린 퇴폐한 지식계급 분자(『신동아』 제6권 7호, 1936, p. 134).
70) 『별건곤』 제26호, 1930, p. 84.
71) 『당성』 제1호, 1932, p. 6.
72) 『농민』 제4권 5호, 1933, p. 51.

화의 한 방법으로 이해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5. 나가는 말

이상으로 1920년에서 1936년 사이 발행된 29종의 잡지가 소개한 어휘 3,164개 중 경제·노동 관련 어휘 368개의 주체별, 시기별 변화를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어휘의 의미 차이를 탐색했다. 경제·노동 분야에 대한 학문적 지식, 구조, 실천 등과 관련 어휘를 소개하고 확산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천도교와 사회주의 계열에서 발행한 잡지들이었다.

천도교 계열의 잡지는 노동, 농업, 자본, 정책, 새로운 문화적 현상과 관련한 어휘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어휘들을 소개하였다. 반면 사회주의 계열의 잡지는 공장, 노동운동과 관련한 어휘가 더 많이 소개했다.

1926년 이후 경제·노동 관련 어휘가 양적으로 증가했던 것은 다양한 잡지의 발행이 증가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경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증가했기 때문이었다. 1931년에서 1936년 사이에 소개된 어휘는 이제까지 소개된 어휘의 영어표현, 모더니티 문화 현상을 반영한 어휘들이 다수를 점했다.

소개된 경제·노동 관련 어휘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초래된 불경기와 공황, 그리고 이로 인해 계급 갈등이 표면화되고, 조선인의 생계위기가 심화된 상황을 반영하고 있었다. 계급 운동과 관련한 어휘가 양적으로 많았으며, 중복해서 소개되는 경향이 있었다. 계급, 쿨리가 5회, 룸펜, 샐러리맨, 사보타주, 공제조합, 공장법, 계급투쟁, 생디칼리즘이 4회, 계급의식, 국제노동회, 경제투쟁이 3회 소개되었다. 금융자본이 5회, 공업동원, 가변자본이 4회, 카르텔이 3회 소개되었으며, 노동계급에 적대적인 일본 우익조직

인 국수회도 3회 소개되는 등 자본·자본가와 관련한 어휘도 다수를 점했다.

중복 소개된 어휘에 대한 설명에서 주체별, 시기별로 의미차이가 발견되었다. 계급 문제를 선취하고자 하는 천도교와 사회주의 계열은 계급 관련 어휘 설명을 둘러싸고 경합을 벌이고 있었다. 또한, 무산자 계급을 지시했던 룸펜의 의미가 1930년 이후 부랑자, 폐물, 퇴폐라는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굳어져 갔다는 점은 계급담론에서 구획된 계급 내부의 분할이 발생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가톨릭청년』, 『개벽』, 『계우』, 『공제』, 『농민』, 『당성』, 『대중공론』, 『동방평론』, 『모던조선』, 『별건곤』, 『비판』, 『사상운동』, 『사해공론』, 『신동아』, 『신만몽』, 『신여성』, 『신인간』, 『실생활』, 『아등』, 『월간매신』, 『인도』, 『전선』, 『조선농민』, 『조선지광』, 『천도교회월보』, 『철필』, 『학등』, 『학생』, 『한글』, 국가통계포탈(http://kosis.kr/index/index.do)

2. 논문 및 단행본

今田寛之, 「1929~33年 世界大恐慌について」, 日本銀行金融研究所, 『金融研究』 第7卷1号, 1998, p. 116.

김윤희, 「근대 신어의 형성, 일상문화 어휘를 중심으로」, 국어사학회, 『국어사연구』 제11호, 2010, pp. 37-67.

_____, 『조선인경제의 탄생과 시장의 발견』, 도서출판 선인, 2018.

김한샘, 「『신어사전』(1934)의 구조와 근대 신어의 정착 양상」, 한글학회, 『한글』 제304호, 2014, pp. 117-139.

박상진, 「19201930년대 대중잡지의 어휘소개에 대하여-현황과 명칭의 검토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국학연구』 제38호, 2011, pp. 129-173.

朴承熙, 朱定均, 『最新經濟學』, 1908.
송찬섭 외, 『한국 근대 신어의 유형과 특성』, 역락, 2016.
송철의 외, 『일제 식민시기 어휘 : 어휘를 통해본 문물의 수용 양상』,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이종극, 『鮮和兩人 모던朝鮮外來語辭典』, 한성도서주식회사, 1936.
이행선, 「식민지 조선의 경제공황과 경제상식」,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한국민족문화』 제54호, 2015, pp. 235-270.
조형렬, 「1920년대 후반~1930년대 전반기 민족주의 계열의 농촌협동조합론-제기 배경과 경제적 지향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회, 『한국사학보』 제61호, 2015, pp. 584-616.
황호덕, 「근대 한어와 모던 신어, 개념으로 본 한중일 근대어의 재편-『모던조선외래어사전』, 공유의 임계 혹은 시작」, 상허학회, 『상허학보』 제30호, 2010, pp. 263-305.

(**투고일**: 2020. 5. 25 **심사완료일**: 2020. 6. 22 **게재확정일**: 2020. 6. 23)

김윤희
소 속: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주 소: 전북 전주시 첨잠로 303 교수연구동 613호
전자우편: kjmom@jj.ac.kr

[Abstract]

Economic Panic and Economic and Labor-related Vocabulary around 1930

- Based on the Introduced Vocabulary of a Korean Publishing Magazine-

Kim, Yun-hee

After World War I, the Joseon economy fell into recession and the economic life of Koreans became more impoverished.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discourse calling for the economic crisis and awakening of the class have contributed to the spread of economic and labor-related vocabulary. The existing research focused on the economic thought of intellectuals, and there were relatively few studies on the effects and effects of discourse. This study was intended to explore economic and labor-related vocabulary as a basic study of economic discourse and economic order ideas. The article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economic and labor-related vocabulary and differences in topics, timing, and meaning, focusing on vocabulary introduced by Korean magazines.

Key words: economy, new language, market, panic, bankruptcy, ethnicity